

“결사, 한국불교 총체적 위기 벗어나는 길”

법보

+ - 🖨️ ↺

교계 입력 2021.11.15 15:59 수정 2021.11.15 16:00 호수 1609 댓글 1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 삼보순례 회향법문 전문

하화중생 부재가 현 위기 자초
만나는 사람마다 불법 전해야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자회 때 드릴 말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전하지 못한 말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자비순례를 마치면서 자자회 끝에 문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 최초로 우리 인류에게 준 메시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인류에게 준 메시지는 ‘생명 가진 존재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기간 중 제일 많이 회자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결사’입니다. 결사라고 하면 유별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혜결사가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불교가 흥하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사치스럽고 부패한 불교를 수행으로 바로 세워보자고 행한 것이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입니다. 부패한 불교를 결사로 이겨보자는 게 정혜결사입니다. 봉암사결사는 무엇입니까. 왜색에 물든 불교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면서 게을러와 수행으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행결사는 무엇이고 상월결사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스님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원력과 신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출가자가 좋고, 신도가 줄어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원력을 갖고 수행과 정진과 노력을 했습니까.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월결사를 했고, 자비순례를 했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하신 일이 포교입니다. 부처님은 앉아서 대접받지 않았습니니다. 결제 때는 상구보리를 했지만, 해제 때는 만행을 통해 포교를 하셨습니다. 길에서 수행하고 길에서 전법하고,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의 한국불교는 어떠합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보리는 개개인이 선방에서 하는지 몰라도 해제철 하화중생을 하는 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리가타를 말하면서 자리에는 연연하지만 이타행을 헌신적으로 행하는 사부대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하화중생, 자리이타를 실천하지 않는 한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10여년 전 일간지 칼럼에서 수녀님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녀님이 줄면 사회봉사는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불교는 없었습니다. 하화중생을 안

이주면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해인사승가대학 총동 “벽암각성 스님과 국
문회 21대 회장에 수 일암·소장 문화재 가

서능동 주민자치위원회, 용인시처인도인복...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
조계종-LH,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업무협약
‘사회학으로 고찰하는 싱가포르 불교의 발전 양...
원법사장학회 “동국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함...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동안거 결제 법어
태고종, ‘종단 통일외레집’ 발간 추진
종관학당, 용수보살 ‘회쟁론’ 겨울캠프 개최

연재

< >

자현 스님의 유튜브 업성기

21. 유튜브 채널 구입



김진영의 불교, 동물을 품다

21. 거북 - 중



박희택의 경전 읽는 기쁨

45. 생사 ③



김형규의 통찰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



법보시

“법보신문 법보시, 쉬우면서...”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부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결제 중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했다면 해제철에는 화하중생, 이타행, 보살행을 실천해야 우리 불교가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부대중이 함께 짊어지고 원력을 세워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부처님 복으로, 부처님 그늘 속에서 호의호식하며 성직자로 살았으니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늘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하면서 과연 어려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처님 믿으라고 포교했는지 되돌아봅시다.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포교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믿으라”는 낯 뜨거운 소리를 하지 않는 한 한국불교는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얼굴 두껍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부처님 믿으라’는 낯 뜨거운 일을 합니다. 이 같은 마음의 전환 없이는 한국불교의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교에 모든 것을 걸어 한국불교가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1609호 / 2021년 11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1개의 댓글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버브 (비회원) | 18시간전

[삭제](#)

병거지 좀 벗으시다.

답글 작성  1  0

많이 본 뉴스

- 01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
- 02 [특별기고]선서화전에서 확인된 한국 불교의 희망
- 03 형제자매 상속권리 폐지...‘스님 유언장’ 효력 커질 듯
- 04 제2회 생명나눔 대상에 배우 수지
- 05 청년·학부모·다문화와 호흡하는 광주 포교거점 도량 선언
- 06 동국대, 전국 대학평가 9위...사상 첫 톱10 진입
- 07 창원불교연, 코로나 극복 발원 ‘시민 힐링 봉축음악회’
- 08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 유회 책임 총무원에 전가 논란
- 09 “교육아사리, 시대변화 따른 활동변화 모색해야”
- 10 정청래 망발 사과 촉구 현수막 전국 사찰에 내걸린다

